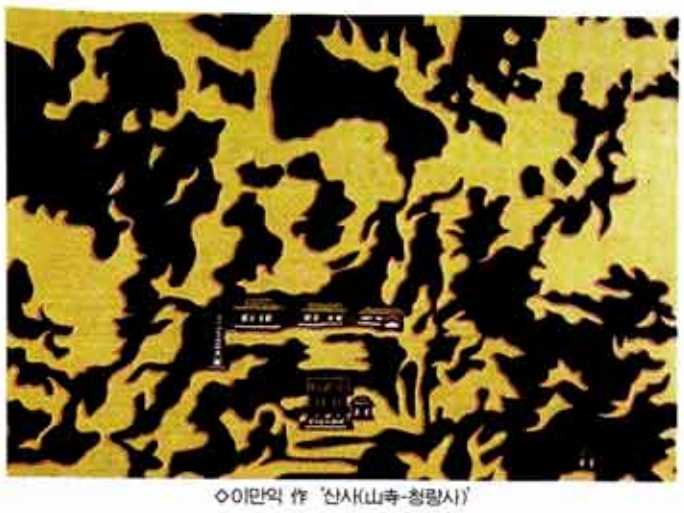


◇이만익 作 '산사(山寺-청량사)'

불교의 세계관을 예술적 형식으로 담아내는 작업은 이제 한국문화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문학의 경우 멀게는 만해 스님에서부터 서정주, 가까이는 황지우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양적·질적 부피와 성과를 축적해 왔다. 한 예로 가톨릭 신자인 소설가 최인호가 경허 스님의 삶을 〈길 없는 길〉이란 소설에 담은 걸 보면 종교적 범주마저 뛰어넘은 듯하다.

이런 흐름은 최근의 공연 예술 분야에서도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바리데기 설화를 바탕으로 한 총체극 '두루왕', 세계최고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의 제작 과정을 오페라로 조형한 '직지' 등이 대형무대에 올랐고, 만해 한용운 스님의 작품을 바탕으로 한 '무애'는 올해 서울무용제(22회)에서 대상을 안았다.

미술 분야 역시 이러한 흐름에 왼 고개를 젓지 않고 있다. 한국 현대미술의 주류에서 선(禪)적 분위기 또는 상생과 원융의 가치 추구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왜 다시 '선'일까.

토속적인 소재로 한국적 화풍을 펼쳐온 이만익(62)씨와 80년대 민중미술을 대표하는 목판화가에서 90년대 이후 선적인 분위기가 짙게 풍기는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이철수(46)씨. 단순·명쾌한 굵은 선과 색채로 대중적 공감을 얻고 있는 두 화가의 전시를 보면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얻을 수도 있겠다.

허가 뜰더-
집집마다 하나씩 허가뜰더-
좋은 날이다
이렇게 좋은 날이다
'이렇게 좋은 날' 철수씨

◇이철수 作 '이렇게 좋은 날'

색으로 선으로 '상생과 원융'

이만익 '한국정서의 원형을…'

12월 17일까지 가나아트센터

300호 넘는 대작 8점 등 40여점

한국적 정서의 원형을 전설과 설화, 서민들의 삶에서 찾아온 서양화가 이만익씨의 '한국정서의 원류를 찾아서' 전은 12월 17일까지 서울 광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열린다.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전시회를 위해 이씨는 1천 호 짜리 '탈놀이', 500호 짜리 '석굴암 본존도' '새날' '무릉부감도' 등 300호가 넘는 대작 8점을 포함해 40여 점을 준비했다.

이번에 선보인 작품들은 예전의 틀을 이어 가면서도 주제의 폭과 표현 방법에서 변화를 꾀했다. 특히 '탑' '산사' '미륵반가사유상' '백제관음도' 등 불교 소재의 작품을 대거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불상이나 사찰풍경 등 불교적 소재가 작가 특유의 화법으로 재해석되어 나온다.

'삼불'은 마애불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재지만 우리의 전통 한복을 입은 가족사진 같은 분위기의 삼존불로 재창조해 낸다. '행려관음도'에서도 한복차림의 관음보살은 다정다감한 '누이'와 '아낙'으로 새롭게 다가온다. 이밖에 한국 탈춤의 해학적 특성을 강렬하게 표현한 '탈놀이'에서부터 '하백일가도' '유화취적도' '주몽' 등 고구려 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과 서민적이고 향토적인 '가족도' '도원취적도' 등을 선보인다. (02)720-1020

이철수 '이렇게 좋은 날'

22일부터 서울·부산 등 5곳서

짧은 잠언 투 문구 깊은 울림

충청도 박달재 비탈에서 땀 갈고 목판 깎으며 살기를 14년째. 목판화가 이철수씨는 1백34점이나 되는 '수확물'을 들고 22일 전국 5곳에서 동시에 전시회를 열었다. '이렇게 좋은 날'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서울 인사동 학고재와 소격동 아트스페이스서울을 비롯해 부산 공간화랑, 대구 예술마당솔, 전주 전북학생종합회관, 청주 무심갤러리에서 12월 16일까지 계속된다.

이씨의 판화는 무엇보다 각자지껄한 도시생활에선 맛보기 힘든 여백의 미를 담고 있다. 이번에 발표하는 신작들 역시 더 이상 보태고 빼기 어려울 정도로 단순화한 표현이 돋보인다. 게다가 그림 한 쪽에 자리잡은 짧은 잠언 투의 문구는 깊은 울림을 더해주기도 한다. 시서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문인화의 전통을 판화에 도입한 이른바 '이철수식 판화'다.

선화적 색채를 띠면서도 이씨의 작품은 고답적이지 않다. 논밭에서 일할 때, 큰길이나 시장에서, 지는 해, 떨어지는 낙엽 등 생활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놓치기 쉬운 것들 속에서 작지만 소중한 깨달음을 끌어낸다. (02)739-4937

권형진 기자(jnny@buddhapia.com)

문화소식

고려·조선 대장경 한자리 모였다

경북대 박물관 '고인쇄 展'

경북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내년 2월 20일까지 열리는 '고인쇄 유물 특별전'은 고려부터 조선 세조 대에 이르기까지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고인쇄물과 전적 자료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다.

이번 특별전에는 불교학, 서지학, 고문서학, 국어학, 민속학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고인쇄 및 전적 자료 150여 점이 나와 있다. 이 대학 의과대학 동문인 김범구(52)씨가 25여 년 동안 모은 것이다.

개인 수집품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장경 관련 자료들이 많다. 특히 눈길을 끄는 유물은 '자비도량참법해'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과 같은 활자로 찍어낸 것이다. 13세기 중엽 고려시대에 간행된 '합부금광명경'은 본문 옆에 구결이 달려 있어 한글 창제 이전의 우리말을 더듬어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조선 세조 때 간경도감에서 펴낸 '반야바라밀다경소'도 인수대비의 발문이 붙어 있어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053)950-6536 권형진 기자

'한국 명무명인전' 하와이서 열린다

무량사-불은사 공동주최

하와이 무량사와 불은사가 12월 2일 오후 3시 하와이 마마이 극장에서 '새천년맞이 한국명무명인전'을 연다.

해외동포들에게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승무를 비롯해 살풀이, 태평무, 대금산조, 민요 등 전통무용과 음악이 공연된다.

출연진들도 화려해 양승희(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오은희(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이수), 김영애(무형문화재 제45호 대금산조이수자), 자은(무용가, 하와이 불은사 주지)스님 등 모두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다.

오후 3시와 7시 두 차례에 걸쳐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특히 20여 년간 불교 무용 포교에 힘써온 자은 스님이 '생로병사'를 주제로 한 무용을 선보여 해외에 한국 불교 무용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장고춤'과 '입춤', 전통민요인 '상주함창가'가 연주된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사이버 문화

깨달음으로 가는 길

만화로 보는 선사들의 삶

'깨달음으로 가는 길'(http://www.nestor.or.kr)에서는 선사들의 일대기 및 유명한 일화를 주로 그려온 만화가 윤승운씨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만화를 통해 선사들의 삶을 일반인들이 좀더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윤씨의 소망이다.

선사들의 치열한 구도행을 다루면서도 난해하기보다는 해학적으로 풀어내려 애쓰는 만화 '선사 일화'는 네티즌들에게 통쾌한 웃음을 선사한다. 나옹 선사의 일대기를 코믹 터치로 그려낸 '나옹 선사'는 어린이도 읽기 쉽게 천안하고 코믹한 어투와 표정을 담아낸 작품이다.

나옹 선사뿐만 아니라 경허·만공·동산 스님 등 역대 고승들의 탄생에서부터 출가와 수행과정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작품 16편이 올라와 있다. 불교교리를 일깨워 주는 '불가 일화'는 일반인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과오에 대한 경책을 담고 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수록되어 있는 윤승운씨의 만화 '선사 일화', '불가 일화'는 격주로 한 작품씩 업데이트된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만화 외에도 선문답 코너를 개설하고 있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박봉현씨 '금상감 사천왕상 은제사리함' 전승공예대전 은상 수상

전통공예 분야에서 최고의 장인을 뽑는 제25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에서 박봉현(40)씨가 출품한 '금상감 사천왕상 은제사리함'이 은상을 수상했다.

'금상감 사천왕상 은제사리함'은 사리함으로는 보기 드물게 상감기법으로 제작한 작품으로 은으로 만든 사리함 겉에 사천왕상을 새겨 넣었다.

이밖에 조영희 씨의 '금니 108불'이 특별상을 받았고, 나혜안 씨의 '관음보살도', 김진철 씨의 '승무복', 이경노 씨의 '철제금은동입사담배함' 등이 장려상을 받았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한국무형문화재 기능보존협회와 한국중요무형문화재 총연합회 공동 주최로 바뀌어 열린 이번 대전에는 313명의 작가가 총 365종 749점의 작품을 출품했으며, 1·2차 심사를 거쳐 132명 143종 307명의 입상작을 냈다.

시상식은 12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서울중요무형문화재 전수회관에서 열리는 전시회 개막식과 함께 열린다. (02)569-2329

권형진 기자

◇은상을 수상한 '금상감 사천왕상 은제사리함'(박봉현 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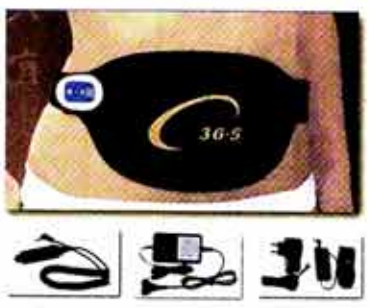
mahamall mahamall mahamall.co.kr www.mahamall.co.kr

108나한단주

- 산복숭아씨를 조각한 100% 수공예 작품
- 염주 한 알에 6분의 나한님이 조각되 있음 (18알×6나한=108나한)
- 오래 소지할 수록 광택이 나며, 그 가치가 더해집니다.
- 고급케이스에 담겨 있어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 수작업으로 정성들여 직접 조각한 단주
- 재질 : 복숭아씨

가격 : 20,000원 (고급 케이스 포함)

玉온열 건강벨트



상품설명

玉온열 건강벨트는 건강회복, 찜질, 휘침, 기능을 원 터치로 가능하며, 원하는 온도조정(36.5°C~70°C까지)가능 그리고 매직벨트로 처리되어 허리사이즈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동의대학교 한방생리학 연구팀과 한의사가 공동 개발한 제품입니다.
2. 온도조절기가 부착되어 피로회복, 휘침, 찜질 등 사용자가 원하는 온도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휴대가 간편하며 외출과 차량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특히 이런 분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장이 약하신분, 소화불량자, 생리통 여성, 운전자, 수험생, 군인, 비만자, 산모, 배앓이, 연세드신 부모님

▷ 내용물 - 건강벨트, 온도조절기, 어댑터, 시가잭 충전기 / 밧데리(휴대용구입시)

색 상 - 검정, 그린, 베이지

가 격 : **가정용 105,000원 휴대용 180,000원**

아생참 인진쑥 액기스

상품설명

자연만을 고집하는 구생복지원 임행스님이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일대의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아생 참인진쑥(茵陳고)을 여러 처사님들과 함께 직접 채취하여 고양산 자락에서 5년이상 자한 칡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딸기)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서 강원남부생약농협 식품사업부에서 현대식 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

※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상품 효능/효과

1. 변비에 좋습니다
2. 피부를 윤택하게 해줍니다
3. 피를 맑게 해 줍니다
4. 손 발이 차거나 저린 사람에게 효과적입니다
5.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6. 담노핑 7. 신경통

- 내용량 : 80g × 60포 - 원산지 : 강원도 고양산
- 가 격 : 175,000원(2개월분)

CD 염불시리즈

영인스님 CD 염불 시리즈 20

1. 예불천수경
2. 석가모니불 정근
3. 관세음보살 정근
4. 화엄신중 정근
5. 약사여래불 정근
6. 천수경/아미타경
7. 장엄염불
8. 금강경
9. 장고가락 염불
10. 지장정근
11. 천도타령 염불
12. 회심곡
13. 부모은중경
14. 팔양경
15. 우리말 천수경
16. 지장경(상)
17. 지장경(중)
18. 지장경(하)
19. 신묘장구대다라니
20. 천도제 의식

가격 : 장당 10,000원

다량주문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

연옥 합장주

최상급의 연옥만을 엄선하여 만든 보석합장주는 14K 금자석에 부처님 또는 卍자가 양각으로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상품 설명

금자석과 연옥을 함께 함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하여 늘 긴장하고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모든 불자 분들, 직장인 특히 수험생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 고급케이스에 대한 보석감정연구원의 감별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 연옥 합장주 : 90,000원
- 금자석 연옥합장주 : 150,000원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상품과 정보를 만나실 수있습니다. Tel : 732-1522·732-1522